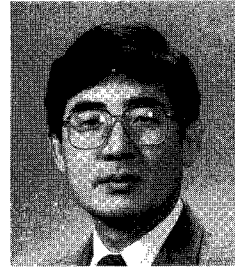


네델란드 바네벨드대학 산란계 과정 연수기



지 규 만
고려대학교 교수

약 20시간의 지루한 비행끝에 드디어 스키 폴드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입국심사대에 이 나라에 양계과정 연수를 위해 온 것임을 알리자 가벼운 미소로 맞아준다. 일행 15명 이라면 10여 상자를 포함한 거창한 짐을 카트에 싣고 공항 청사문을 나서자 반 리스(Hemlich van Rees)씨가 중형 버스를 갖고 마중나와 있었다. 앞 머리가 많이 벗어지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호감이 가는 인상의 그를 만나자 지금까지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네벨드시까지 1시간반 정도의 거리를 가면서 주변의 네델란드의 지형, 축산농가 또 축산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우리 숙소는 캣슬 드 샤펠라라고 부르는 대저택이었다. 이 성은 중세 이 도시의 시장이던 백작의 사택이었고 현재는 바네벨드시 소유 재산인데 대학에서 임대하여 연수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기숙사는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학교 옆에 또 하나의 작은 다른 기숙사가 있다.

우리 기숙사에는 1인용 방이 20여개, 2인용 방이 10여개 있으며, 일층에는 식당 홀, 두 개의 휴게실이 있고 당구와 탁구, 핀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회의실, 강의실 및 컴퓨터실(PC) 등은 2층에 있고 지하실에는 세탁 시설과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바가 있었다. 1인용

방은 화장실과 샤워시설까지 포함해 4평이 채 안될 정도의 크기에 침대, 책상, 옷장도 있어 매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비좁았다. 옛날 백작 시절에 하인이나 하녀들의 숙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였으나 대학에서 인수하여 수용시설을 늘리기 위해 개조한 것이라고 한다.

두 기숙사의 연수생이 모두 캣슬 드 샤펬라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고 식사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약 1시간정도만 열고 있었다. 아침 메뉴는 대개 몇가지의 식빵과 치즈, 햄, 버터, 우유 또는 요구르트, 커피 등이며, 점심과 저녁에는 감자, 볶은밥 비슷한 것, 닭고기 등이 나오는데 이들은 네델란드식 아니면 인도네시아 식의 메뉴였다. 인도네시아가 전에 네델란드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중국식 비슷한 인도네시아 음식이 이 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미 짐작이 가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일행은 처음부터 여기의 음식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따라서 식당에 고추장, 장아찌가 단골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미리 준비해간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의 사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니 근무자의 근무시간에는 주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역시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였는지 어느새 재빠르게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준비되고 많은 분들이 얼큰한 라면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때 먹은 라면덕에 일행중 어떤 분들은 귀국한 후 라면이라면 아예 근처에도 가기 싫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한 6월 12일 부터 한주일간은 비가 자주오고 날씨가 추워 아침 산책을 할 생

각을 못하였고 방마다 난방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 다행히 두번째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따스한 날씨가 회복되었다.

1. 네델란드의 축산 및 양계산업

네델란드의 축산은 농업 총생산액(1992년)의 60.5%를, 원예는 32.4%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우유로 총생산액의 42%, 다음이 돈육 26.4%, 쇠고기 18.8%, 계란 5.5% 및 닭고기 6.9%(1993년)의 순서로 되어 있다. 흥미있는 것은 이들 비율이 '91년부터 '93년도에 걸쳐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며, 이는 축산물별 생산량이 농가별 쿼타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가축별 사육수는 산란계가 42백만수, 육계 45.8백만수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며, 돼지 14.9백만두, 육우 3백만두, 젓소 1.7백만두(1993년)였다.

산란계의 수당 연간 산란수는 295개(1990/1991년)이며, 연간 계란 총생산수는 95억개 인데 이중 7억개(1994년)는 소위 깔짚 계란(deep litter egg)이 차지하고 있다. 이 deep litter egg는 말 그대로 평사에서 산란된 계란을 뜻하는데 이 통계에는 자연란(free range egg)도 포함되어 있다. 네델란드에서 생산되는 계란과 계란부산물의 82%가 수출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이 69%로 가장 큰 고객이며 다음이 벨지움/룩셈불그가 8%, 홍콩 6%, 불란서, 스위스, 영국 등이 3~4% 수준이었다. 네델란드 국내에서 소비되는 계란은 1인당 173개(1994년)인데 이중 1/3 이상을 자연란 또는 aviary egg가 차지하고 있

다. 특히 독일에 수출하는 계란은 주로 백색란이며 그의 난황색은 Roche color fan으로 최소 12 정도의 색도를 유지한다.

Aviary egg란 넓은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이란 뜻이다. 이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현상으로 동물애호가 단체의 압력에 의해 닭의 개체별 사육면적이 기존보다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아예 개별 케이지가 없이 넓은 계사내에 2~3층의 운동장 시설만 갖추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토록 하는 사육시설(예, 폴리에 방식 시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란의 브랜드 중에는 네가지 곡류를 급여하여 생산된 계란이란 뜻의 four-grain egg도 있고, 청초를 먹여 생산하는 grass egg도 있다. 또한 들에 놓아 사육하며 생산하는 계란으로 free range egg, 광활한 지역에서 사육 생산하는 ecological egg,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biologic-dynamic egg, Araucana 품종에서 생산하는 녹색의 Araucana egg도 소개되고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첨가한 계란으로 linoleic acid를 강화하였다는 문구를 포장에 써놓은 것도 있었다.

특히 welfare egg로 분류되는 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 10~20% 정도 더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 계란이 결국 소비자들의 동물보호 요구에 맞추어 생산되는 것이며 그로인해 효율면에서 불리한 사육조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더 비싸다는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계란을 구매하는 것이 동물보호에 도움이 되며 거기에 협조한다는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Free range 계란의 생산을 위한 산란계의 적정 사육규모는 한 사람이 평균 12천수의 산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민 1인당 육계의 소비량은 1994년도에 연간 19.7kg이며 이를 닭고기로 환산하면 거의 10kg에 해당된다고 한다. 네델란드는 유럽 전체 육계 생산량의 8%를 생산하며, 생산되는 닭고기의 3/4이 수출되는데 그중 38%가 독일에 판매된다.

계란이나 닭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해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닭고기는 1992년부터, 계란은 1995년부터 적용되는 PPE/IKB(Product Board for Poultry and Eggs/Integrated Quality Control)라는 제도를 두어 종계, 사료, 부화, 육계생산, 도계장, 계란 생산과정 등에 일정한 위생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 제품의 품질 보장과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준수는 Poultry, Eggs and Egg Products Inspection Board(CPE)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 육계의 경우 1995년에 Salmonella에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1994년 까지 800개 이상의 농장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에 해당된다. IKB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VP 약품과 GMP 사료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각각 good veterinary practice와 good management practice의 약자이다.

이 나라는 축산물의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당 축산물 생산량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예, 우유)도 있지만 그보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가축분중 인산염(phosphate)의 양에 의해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분을 펠렛으로 만들어 아프리카에 수출할 경우 그 농가의 인산염 생산 쿼타는 그만큼 여유가 있게 되어 더 많은 산란계를 사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산염은 축분에 의한 토양 오염의 기준이 되어 있어 국가통계에서 축종별 인산염의 발생량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1994년도에 축분에 의해 생산되는 전체 인산염 213.1 백만 kg중 소에 의한 것이 48.5%이며 다음으로 돼지 34.4%, 산란계 11.95, 육계 5.2%의 순이었다.

2. 바네벨드 대학의 연수 교육 내용

바네벨드대학의 교육시설은 겉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인상을 줄 정도가 못되나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 면에서 보이는 대학의 강의동은 평범하게 보이는 단층건물과 3층 건물 뿐이다. 실습용 축사의 일부는 이 건물들의 뒷편에 배치되어 있고,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학교 농장이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에게 주어진 두 주일의 연수기간동안 교육 일정은 아래 표에서와 같다. 이런 연수교육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위탁하는 쪽의 요구에 맞추어 항상 변화된다. 이 대학의 연수프로그램은 자체에서 개발하여 3~6개월간의 과정을 요하는 것부터 피교육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는 단기과정 등 여러종류가 있다고 한다.

여기 제시된 일정표는 본래부터 계획된 것이었으며, 이중 몇가지는 연수 도중에 변경되었다. 프로그램 담당인 반 리스 씨는 우리가 연

첫 번째 주

일자	교시 학과명	담당 교수명
6. 12 (월)	1-2 서론	H. van Rees, H. W. ten Brinke
	3-4 교내 시설 견학	J. Steverink
	5-6 사양	Bronkhorst
	7-8 농장 계획	G. v. d. Linden
6. 13 (화)	1-4 농장 관리	J. Steverink
	5-8 LACO 견학	E. beitler, J. Steverink
6. 14 (수)	1-2 농장 관리	J. Steverink, E. Beitler
	3-5 계란 품질	G. de Lange
	6-8 계분 관리	M. Veldhuizen
6. 15 (목)	1-4 산란계 위생	Dr. de Wit
	5 영양	G. W. Bouwman
	6-8 백신기술, 기생충, 혈액 채취	J. Steverink
6. 16 (금)	1-8 Hendrix	G. v. d. Linden
	종계농장 방문	H. van Rees

두 번째 주

일자	교시 학과명	담당 교수명
6. 19 (월)	1-2 계사 환경	H. Hulzebosch
	3-4 도태	B. Bronkhorst
	5-8 산란계농장 방문	H. van Rees, K. Gijsberts
6. 20 (화)	1 계란 품질	G. v. d. Linde
	2-4 농장 경영	K. P. de Ridder
	5-6 사료	G. W. Bouwman
	7-8 MOBA 방문	G. v. d. Linde, G. W. Bouwman
6. 21 (수)	1-2 사료	G. W. Bouwman
	3-4 점등	G. Bronkhorst
	5-6 계사 시설	B. Bronkhorst
	7-8 육성	E. Beitler
6. 22 (목)	1-2 생산비	F. Aerts
	3 사료	G. W. Bouwman
	4-5 환우	F. Aerts
	6-8 농장 방문	E. Beitler J. v. Klooster
	저녁 바베큐 파티	
6. 23 (금)	1-4 계사 시설	B. Bronkhorst
	5-6 자유시간	
	7-8 종합토론 및 연수 평가	H. van Rees, G. W. Bouwman



△숙소인 캣슬 드 샤펬라 앞에서 산란계 연수반이란 표말을 들고 있는 연수생들

수과정에 만족해 하는지, 다른 특별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 자주 문의가 있었고 그 결과 예를 들어 사료학 강의 대신 사료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산란계 육성에 대한 강의 대신 우리의 요청에 의해 육계농장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해 본래의 연수 일정에 없는 저녁 수업시간에 Intervet 회사 직원으로부터 백신에 관한 특별 강의와 비디오를 시청할 기회도 있었다.

연수과정 동안에 들은 이 나라에 관련된 단편적인 지식과 산란계 연수 내용중 인상적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보겠다.

네델란드에는 농과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약 50개 정도라고 한다. 소학교는 4살에서 12세 까지 다니며 12세 이후부터 장래 직업 분야별로 진출한다. 농업 분야도 그중의 하나로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직업학교가 예비직업 교육학교, 그 다음 단계가 Secondary agricultural education, Higher agricultural

college, Agricultural teacher training college 등이며 농과대학중 가장 좋은 단계의 학교는 Wageningen Agricultural University인데 농업 분야의 석사학위(MSc)와 박사학위(Ph.D) 과정이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각 단계별 교육기관의 목표는 해당 수준의 농업 기술자 양성이며 연구자(학자)의 육성은 단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런 정규과정외에 농민의

재교육을 위해 Adult agricultural education 이나 바네벨드 대학과 같은 Practical training center들이 있다. 바네벨드 대학구내에 같이 붙어 있고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그로엔홀스트 대학은 바로 Secondary agricultural education에 속한다.

바네벨드 대학 교수중 많은 사람이 Higher agricultural college 출신이며, Wageningen 농대출신도 소수가 있으며 그 중에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이 대학은 자체적인 연구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교육, 훈련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유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이 대학은 앞에서 열거한 각급 농과대학 축산관련 학과학생의 실습을 담당하고 있어 실습에 필요한 시설과 강사진의 실습 강의에 대한 숙련도는 매우 우수할 수 밖에 없다.

이 대학은 농민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대학의 운영비중 75%가 정부 보조이며, 나머지

25%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전체 직원 120명중 절반이 강사진이며, 이중 30여명은 해외 프로젝트의 참여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학은 그동안 헝가리, 소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튀니지아, 대만, 콜롬비아 등과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이 학교의 실습시설중 특히 놀라운 것은 LACO, Meller, Hellmann, Salmel 등 유럽의 유명회사의 자동계사용 직립식 케이지 제품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은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것을 기증받은 것이라 하는데 정말 부러운 장면이었다. 학교 실습농장에 이 기계들이 실제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뉘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급수장치, 환기 및 온도제어 장치들이 전시되어 있고, 특히 축분의 건조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소개하는 훌륭한 전시실은 이 나라에서 축산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두주일 동안 10일의 교육기간중 산란계에 관련된 강의 과목이 총 16개였는데 이것을 12 사람의 강사가 전문분야 별로 나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러운 광경이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대학의 강의가 얼마나 전문화 되어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개 교수진의 강의 과목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 담당과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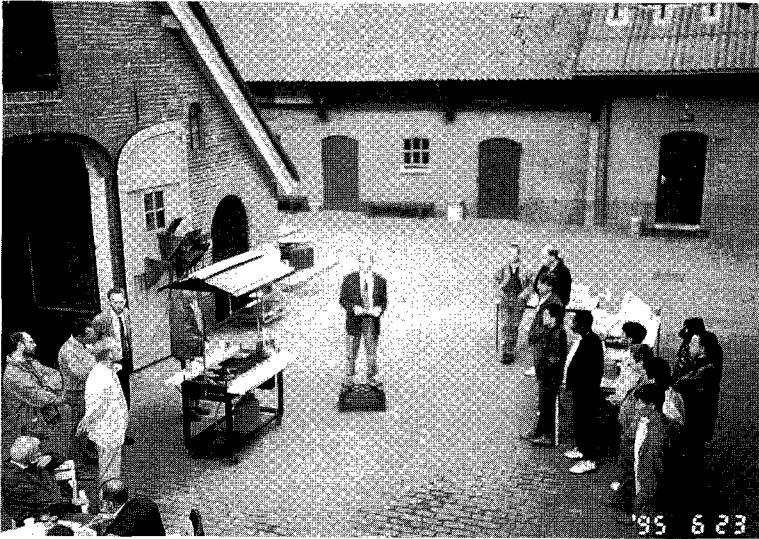
이 나라의 수업 시간은 아침 8시 반에 시작하며, 한 강좌가 50분 단위로 구성되며 100분

연속 강의후 15분간 휴식을 취한다. 점심 시간이 12시 5분부터 한 시간 주어지며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 마지막 수업이 4시반에 끝나며 이렇게 해서 하루 8시간 수업이 이뤄진다.

인상적인 수업으로 렌덴씨의 농장 계획에 관한 강의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연간 1억개의 계란을 생산코자 할 때 산란계와 육성계의 적정 사육수와 비율, 필요한 계사의 규모와 숫자 등을 육성기간, 산란 기간, 생존율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홀츠보쉬씨의 계사 환기에 관한 강의도 풍부한 재료를 동원하고, 환기 방식의 발전사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매우 인상깊은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벌어진 과목은 가금 질병에 관한 시간이었다고 판단된다. 늦은 저녁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Intervet 회사에서 초청된 연사에 의한 강의 시간에는 우리 팀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4주과정의 양돈 연수반 까지 참석하였으며, 질문시간에는 주로 우리 일행에 의한 질문으로 열띤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IB, 감보로 및 뉴캐슬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이 나라에서는 분무백신을 선호하며 용도에 따라 분무 입자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호흡기 깊숙히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경우 분무 입자를 작게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대학시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이 오후 4시반까지 제한되어 있어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도서관도 폐관되는 사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50~60명 정도로 별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중앙에 Ten Brinke 학과장)

크지않은 도서관이지만 축산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주였으며, 상당히 많은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었는데 네델란드 말로 녹음된 것이 많았다.

연수기간 동안에 양계농장, 양계 시설업체, 사료공장, 농기구판매점 등 여러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양계시설회사인 라코(LACO)사 방문에서 폴리어(Volier)방식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입방 미터당 산란계 23~25수를 기를 수 있어 케이지 보다는 못하나 일반 평사보다 더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계란은 소매가격에서 개당 9센트 정도 더 받을 수 있다(생산하는 한 개당 2.3센트를 더 받는다함).

또한 이 회사 제품의 설치비는 직립식 케이지의 경우 현지 가격으로 수당 16길다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산란계 케이지의 규격에서 현재 유럽연합(EU)의 규정에 의하면 산란계 한

마리당 허용면적이 450cm², 케이지의 경사도가 14% 이내(즉 8도), 높이가 40cm 이상이여서 거기에 맞추어 제작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주문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정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태극 마크 주변에 검은 테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암스텔담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즉시 고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그외 여러곳에서도 우리가 방문할 때 태극기를 게양해 주는 세심한 배려

에 감사하면서 또한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헨드릭스 종계회사에서 이 나라의 종계 육종능력을 보았고 그분들의 친절한 안내도 인상적이었다. 계란선별기를 생산하는 모바(MOBA)사에서 선란, 운반기의 제작과정을 견학하면서 제품의 견실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과 자세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양계장용 소도구들을 생산하는 임펙스(IMPEX)사에서 그 회사 제품들의 정밀성에 감탄하였다. 예정에 없었던 부화기 제작회사인 파스르품을 방문하게 되었다. 제담시에 있는 이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저녁 6시 반에 떠나 독일땅을 가로질러 가면서 포장도로에 그어진 국경선을 신기해 하며 독일땅을 훑아보는 재미를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연수과정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와 비슷

한 입장에 처하게 될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금번 산란계 연수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성은 산란계 사육가가 열두분, 농림수산부 직원 한분, 지방 공무원 한분 그리고 본인이 통역담당으로 참가하였다. 연수 기간이 2주나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으나 강의가 외국어와 그의 통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의 강의시간은 전체의 절반인 1주분 밖에 안된다. 강사들도 그것을 의식하고 강의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강의용 자료가 주어지나 요점 또는 참고 자료가 주 내용이므로 충실한 편이 못되며 따라서 강의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지는데 피교육자들의 노트필기 능력이 딸리며, 통역자는 노트를 필기한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디오 카메라 또는 녹음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크게 도움될 것이다.

본인은 연수의 전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런 규모, 방식의 농민 재교육 기관의 설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교육내용은 환경, 환기와 양계농장의 운영계획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며 분야에 따라 전문가들이 육성되어 있고, 또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실습시설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며 특히 산란계 자동화 시설의 전시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해 진다.

연수에 참여한 양계가들의 열성에 비해 의외에도 국내에서 습득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졌다.

본인을 포함한 국내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양계가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반 양계가들의 재교육을 위해 시도된 방식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네벨드 대학과 같은 농민 재교육기관의 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최근 국내 4년제대학들의 변신 방향이 축산 현장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 축산 현장과 직결된 교육을 도맡아 해줄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은 한시가 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며 새롭게 투자하기 보다는 이미 많은 교육 경험과 인력을 갖고 있으며, 실습 시설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기존의 전문대학을 선택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축산농민의 재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다.

본인이 미국에서 가금학을 공부할 때의 경험에 비해 바네벨드대학의 교육이 역시 실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한편 20여년전 학생때에 비해 계사시설의 자동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상황에서 시설과 기구에 관련된 분야에 또한 강의의 많은 비중이 주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또한 내가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가금학 내용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이번 연수가 나에게서는 실로 오랜만에 현대적인 양계 기술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양계**